

# 조계종 가사의제 통일

### 조계사서 설단식...종단 상징문양 삼보륜 직조



조계종 스님들의 의제를 통일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조계사는 9월4일 가사불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편수 무상 스님(오른쪽 두번째)과 도감 재경 스님(왼쪽)이 가사전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의제 통일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불기2549년 가사불사 설단식'이 9월 4일 조계사 임시 가사당에서 열렸다. 가사불사 설단식은 불사를 시작하기 전 총감독 격인 편수와 도감, 화주 등 가사 제작의 실무자들이 가사당에 모여 불단을 세우고 가사불사에 쓰일 천과 기구들을 점검하는 의식.

조계사 신도회 열 조립식 건물에 임시로 마련된 가사당에는 공업용 재봉틀 4대와 다림질 테이블 4개가 가로로 길게 놓였고,

재단과 시침질을 할 넓은 자리도 한 가운데 마련됐다. 편수를 맡은 무상 스님(법주사은)은 "여래와 보살의 큰 옷인 가사를 수하는 지는 큰 복전이 되고, 가사를 조성하는데 동참한 사람은 수승한 복이 구름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주지 도문 스님도 "이번 가사불사는 달리 종단의 의제를 통일하는 불사"라고 강조하고 "편수 무상 스님의 지도와 자원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가사불사가 원만회

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사불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영원불변한 불성과 불법을 상징하는 법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법의(法衣)를 공양하는 것으로, 설단식에는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포교국장 재경 스님, 진실행 신도회 부회장 등 실무자 1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올해 조계사 가사불사는 종단의 의제를 통일하는 시범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올해 동안계 입제전까지 모두 1000벌의 가사를 만들기로 하고, 최근 종단상징 문양으로 등록된 '삼보륜(법보승 3원을 하나로 두른 큰 원)'이 직조된 옷감의 생산을 의뢰했다.

먼저 종단 최고 어른인 대종사부터 일반 스님들까지 품계에 맞는 가사를 시범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법계에 따라 원로스님인 대종사와 종사는 25조, 선사 율사 법사 강사는 15조,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9조 가사를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과 올해 10월 3급 승가고시 합격자들에게 봉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사도감 설단식에 조계사 가사당에서는 침선(재단, 재봉, 바느질, 다림질)을 비롯해 가사제작에 동참하려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봉틀(공업용 미싱)을 빌려줄 신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가사불사 회향은 11월 6일, (02)732-2187 조종수 기자

## 진각종 국제불교 업무 통합

진각종의 국제불교 관련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진각종 총의회의장 진산 정사는 9월 2일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제 344회 임시 총의회를 갖고 국제불교 업무를 국제불교연구소에서 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불교연구소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국제불교연구소는 문화사회부 소속에서 독립된 전문 연구부서로 지위를 격상했다.

또 국제불교 연구소장은 진각종의 스승으로서 부장급으로 하고 위촉은 원의회를 거쳐 통리원장이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불교연구소는 그동안 문화사회부 소속이면서, 사실상의 업무는 포교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과 연계성 등이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

했다.

국제불교연구소는 앞으로 △국제포교에 관한 사항 △JGO 해외지부 운영 및 관리 △해의 심인당 포교연구 및 상호지원 △국제불교 및 국제학술교류 △남북불교교류 △통일이후의 북방포교 등의 연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원로 스승 10월 퇴임**

진각종 원로스승 기로전원식 및 퇴임식이 10월중에 개최되는 추기스승강경 때 봉행된다.

진각종 원의회의(의장 최경)는 9월 1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 240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퇴임하는 원로스승은 일정 정사(능인심인당), 자각정 전수(능인심인당), 실각정 전

수(통리원), 혜정각 전수(묘향심인당), 명선각 전수(법상심인당) 등이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건설사업단 발족**

태고종은 종도들이 사찰을 중·개축할 경우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건설사업단(단장 정승) '가람'을 발족했다.

건설사업단 '가람'은 외부의 전문업체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02) 382-7361 김원우 기자

**천태종 율유년 하안거 해제**

천태종 율유년 하안거 해제식이 9월 10일 밤 10시 구인사 5층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하안거는 8월 11일 입제해 한달 동안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 남북 평화통일 기원 수록영산재

### 관음종, 금강산 신계사서

"금강산의 자연은 그대로가 비로자나의 화신입니다. 전쟁에서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소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수록영산재가 봉행된 8월 30일 북한 금강산 신계사주지 제정. 관음종 총무원장 홍과 스님의 영가 천도법문이 금강산 제국을 타고 울려 퍼진다. 관음종 각 사찰 주지 스님과 150여 사부대중들이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전쟁을 통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영혼 및 유주무주 인연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한 전투가 신계사 지역에서 벌어져, 수많은 남북한 군인들이 희생됐다. 천년고찰 신계사도 이때 불에 타 50여 년간 잿더미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에야 대웅전이 남북 불교계의 합심으로 다시 건립됐고, 지금은 만세루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홍과 스님은 이날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는 종단을 초월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북한 동포에게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내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종은 이날 복원불사에 쉼달라며 금일봉을 신계사 주지 제정 스님에게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 태고종 경남교구 선암사에서 자비실천 수계대법회 열려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원장 월봉)이 9월 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자비실천 수계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종정 해초 스님을 증명으로 도를 수계한 대화상을 전계 아사리로, 철화 경호 대화상을 교수 아사리로, 운산 대행 대화상을 갈마 아사리로 청은, 등법, 산옹, 금룡, 태우, 월봉, 서산 스님을 각각 7중사로 봉행했다.

이번 자비실천 수계 대법회에서는 경남종무원 소속 중부본원, 밀양본원, 서부본원, 김해본원, 남부본원, 동부본원, 고성본원 등 7개 본원 신하 150여 사람 신도 2000여명이 보살계를 받았다.



##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 취임·종무원 임명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으로 선출된 월해 스님(현 금강정사·봉서사 주지·총무원 총무부장)의 취임법회(사진)가 8월 25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태고종 사정원장 법상 스님, 대전시 사업연합회장 문봉 스님, 태고종 대전교구 윤석인 신도회장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전교구가 비록 60여 개 미만의 사찰로 구성되어 힘은 미약하나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종단의 발전을 돕고, 나아가 대전교구가 한국불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교구 종무원장 취임식에 이어 종무원 임명식도 함께 열렸다.

△부원장 지륜(백련사) △사정원장 법안(인심정사) △교무원장 동산(대각사) △포교원장 동해(동관음사) △총무부장 남산(인국사) △기획국장 우담(해안사) △사회국장 윤원(화암사) △재무국장 성인(석림사) △교입국장 무진(해운사).

김원우 기자

## 천태종-조불련 영통사 낙성 실무회담

천태종이 9월 14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영통사 낙성식 봉행에 따른 실무접촉을 갖는다.

조불련은 9월 6일 천태종에 정서정 서기장 명의로 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팩스전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 3명을 금강산으로 파견해 조불련 정서

장 서기장 외 2명과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8월 16일 영통사 낙성식을 천태종 스님과 신도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일 경 현지에서 개최하고, 학술세미나도 열자고 조선불교도연맹에 제안했다.

김원우 기자

## 지역사찰 활성화 주제로

### 조계종 포교총책연찬회

"사찰이 농촌과 손을 잡고 지역개발을 통한 포교 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조계종 포교연구실은 9월 8일 2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역활성화 정책과 지역사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4차 포교총책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공공기관의 활성화 방안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승현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역과

사찰이 하나가 되는 '마을육성계획'을 만들어 행자부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림부의 농촌마을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가꾸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과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임경수 (주이강 대표)는 "종단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마을을 네트워크 한다면 지역개발의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며 "전북 부안군 입암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름을 아예 '내소사 입암마을'로 바꾸어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비 기자

### 수맥과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화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를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 옴마니 반메움 건강벨트

축복의 벨트! 성공의 벨트! 지혜의 벨트!



음악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한다는 옴마니 반메움 건강벨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벨트다. 또한 일반벨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벨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멜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족으로된 고품격 고급벨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능협053-12-102911

###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안에서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불러 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교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옴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뒷말을 듣지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의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능협053-12-102911

###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과 감정 개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 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

###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교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덕을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굳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능협053-12-102911